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현재 공교육으로써 학교에서 우리의 종교교육은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과업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가 다종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의 딜레마로서 교육주체들간의 관점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과로써 종교교육은 교양 선택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복수교과 설정, 임시부담 등으로 인하여 학습자 중심의 선택의 모호성 있고, 재량활동 및 특기 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인접교과와 관련된 종교교육은 유기적 관련 아래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사양성, 재교육(승진)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한 적어도 종교교사 양성체제도 그에 걸맞게 재편되어야 하며, 교과서 개발 역시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비록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면서 학습자와 갈등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교과교육을 보완과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는 교육목표 설정의 모호성, 교육내용의 중첩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모호성 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으로 종교문화 교육모형과 통합모형을 들 수 있는데 적어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종교성의 함양이라는 목적에서 그 장점을 수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주제어: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종교교과, 종교교사, 종교교육과정

I. 이끄는 말

한국의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계 사학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 배경은 우리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당위성 못지않게 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종교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종교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그동안 종교교육학에서 축적해온 학문적 노력의 산물로 이해된다.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이 어떤 형태로든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노력의 결과와 관련해서 정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업적 가운데 이런 노력을 확인하는 길 중에 하나는 종교교육학이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지속해 왔는가라는 학문적 성격을 들여다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학문이 학문으로써 정체성을 갖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S.S.Shermis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¹⁾을 생각해보면 이런 기준의 명시적 요구는 적어도 종교교육학이 과연 어떤 목적 아래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어떤 접근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낳아 사회에 기여하는가로 집약될 수 있다. 그렇다고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규정에 대한 담론이 기존의 연구나 접근 방법에 의한 노력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적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보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접근해왔느냐에 관심을 둘 따름이다.

이 논문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공교육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한 모종의 평가적 입장에서부터 전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다 관심사는 성직자 양성이나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적어도 종교교육이 공교육인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이뤄질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종교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묻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을 정립하는데 있다. 그렇다고 이 논문에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모형을 제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이미 학계에서 수행된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개념모형을 중심으로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고

*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1) Shermis, S.S.S., on becoming an intellectual discipline, *Phi Delta Kappan* 44(Nov. 1962), pp. 84~86.

려해야 할 변인이 무엇이며 이를 통한 개념모형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 분류는 다양한 편이나 독립된 교과 설정여부와 사회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 본다.²⁾면 한국은 공립학교에서는 교과로써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면에서 미국 및 일본과 유사하지만, 종교계 사학에서 종교교육을 과목으로 인정하는 면에서는 개도국 및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비단 종교의 교육적 역할 외에도 우리 사회는 다종교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법률제도적인 면, 종교교육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호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³⁾, 사학에서 의무적 종교교육의 합헌적 검토⁴⁾, 교과서 문제⁵⁾, 교사양성 및 재교육문제⁶⁾ 등은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학생의 선택자유와 사학의 자주권간의 충돌 문제가 대두되어 이제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학교법주만이 아닌 범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⁷⁾. 이렇듯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2) 江原武一,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7~8쪽에서 종교교육의 분류를 공교육에서 종교교육과목으로 도입 여부,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제1유형은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도입하고 있는 발전도상의 제국(말레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레바논 등 국가), 제2유형은 미국 공교육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는 필리핀, 국가가 종교교육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중국 등이다. 제3유형은 종교교육을 과목으로 도입하지 않는 선진제국(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제4유형은 종교교육을 과목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진제국(영국)등으로 분류함.

3) 정진홍,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5-10쪽.

4) 손희권,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합헌적 검토>, 2004년도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10,30) 발표논문.

5) 김귀성,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8집, 2002.

6)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 연구》 21-2, 2004.

7) 지난해 서울의 모 종교계 고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예배를 거부하고 종교자유 선언을 하자 이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법정에 판결로 비화된 사건이 있었음(04,8,18 경향신문), 모종교계대학에서 교내 채플 의무수강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문제가 야기된 적 있음. 연합뉴스('05.9.14)에 의하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겨받은 정보공개 답변자료분석 결과'05년 6월 38개 종교학교(개신교 31, 불교3개교 등) 가운데 종교의식을 학내에서 진행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에 지나지 않으며, 종교과목 편성시 학생 선택을 위해 복수로 편성한 경우는 38개교 중학교 중 19개교 등으로 나타남.

거시적으로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미시적으로 누가, 왜,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며,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과연 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위에서 발전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가 결코 부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⁸⁾. 그동안 학계에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담론은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1996년),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2001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고 상당한 결과물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⁹⁾.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들(약50여편)중에서 기독교 학교교육 관련 학위 논문이나 논문문헌자료가 별책¹⁰⁾으로 간행될 정도로 개별종교단체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 연구는 익숙한 편이다. 예컨대, 기독교교육학, 불교교육학 등이 그 예이다¹¹⁾. 물론 이런 연구들이 종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개별 연구성고가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공론화나 공유지대를 확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성급하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해 井上順孝

8) 산발적이긴 하나 학교에서 종교교육관련 선행연구로는 손희권(2000, 2004), 박범석(2002, 2003, 2004), 김철주·고병철(2004), 신광철(2001), 김귀성(1997, 2002, 2004), 전호련·고진호(2001), 한내창(2000, 2001, 2002, 2003, 2004), 전영배(1988), 권승오(1981), 이화연(1993), 한옥(2000), 현익채(1982), 박선영(1996, 2001), 정진홍(2001), 등이 있고 2005년도 현재 해외논문 검색을 해보면 국내 학자가 종교교육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만 302건이 검색되고 있고, 국외에서 종교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영미문화권에서는 *The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ISSN 0034-4087/Vol 100 issued 2 Spring 2005)/*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전문학술지가 발행되고 있음.특히 경험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June 2005, Vol 44 Issues 2)에서는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서 종교교육연구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대별한다(Harold E.Mitzwl, 1982: 1609-1610).즉,(1) 종교성과 종교적 신념 및 태도에 대한 측정 (2) 인지 및 도덕적 종교성 발달 (3) 인격 혹은 시민 의식의 훈련 (4) 학습자의 특성 (5) 종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등임.

9) 유재봉, <종교와 도덕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철학 40년>,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33집, 2005, 88쪽.

10)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 《한국신학관계식·박사논문목록집:1945-1988》,나눔,1988/

오인택, 《한국 기독교 교육학 문헌목록: 1945-1980》,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1)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와 종교교육 연구가이드』, 동국대학교, 2005.

등이 주축이 되어 한일 및 국제심포지움 결과가 발표¹²⁾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하여 그간 이뤄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 개념 설정과 관련한 난점 및 관련 하위변인은 무엇이고 미시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및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모형 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런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모형 설정의 노력은 적어도 학교교육에서나마 종교교육이 어떤 목적아래 그 내용과 접근 방법, 결과가 공유되어야 하고, 학교교육의 구성원간에 모종의 합의모형 설정을 통하여 건전한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에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해본다.

II. 종교교육 개념의 딜레마: 학교 외연의 문제

1.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하여 종교교육학이 어떤 학문적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질문은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되묻는 말이 된다. 그런데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물론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앞서 어떤 관점에서 그 대상을 연구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연구의 대상이 모호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테면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연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교육인지 또는 종교교화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내 종교교육, 종교 교단내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발견된다. 예컨대 거시적으로 기독교교육, 종교교육, 기독교적 종교교육, 교회교육, 주일학교교육, 종교학습 및 교리학습 등을 망라하여 기독교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미시적으로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를 넘어서 교육목적, 특수한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종교적 배경을 전제로 한 차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종교교육의 연구 대상도 어디서 어디까

12) 井上順孝, 《宗教教育資料集》, すずき出版, 1992/『宗教と教育』, 弘文堂, 1997/『教育のなかの宗教』, 新書館, 1998/〈現代日本 宗教教育 實證的研究(平成12年)〉 등이 대부분 연구프로젝트로 수행되어 발표된 바 있고, 杉原誠四郎・大崎索史・具塚茂樹,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文化書房博文社, 2004 등이 확인된다.

13)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3쪽.

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모호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 종교교육학은 각 종교에 배경을 두고 연구된 각론은 있지만 그들간에 종교의 울을 넘어 학문공동체의 대화와 담론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저 독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학이 학문적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는 길 중의 하나는 이제 각론 못지않게 공유된 언어로 담론의 장에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다학문적 연구 방법론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⁴⁾. 또 학교교육태의 범주를 그저 수용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해본다. 종교교육학이 교육학의 하위 학문인가? 종교학의 하위 학문인가? 또는 이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반문을 해본다. 이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떤 시각위에서 바라다 볼 것인가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종교교육학회는 비록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교육학과 종교학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학회로써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교육학적 배경보다는 대부분이 종교학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편이다. 이런 현상은 종교학회내에 종교교육분과도 마찬가지다. 물론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문공동체에서 구성원의 학문적 배경이 다른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어떤 관점에서 정립할 것인가에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종교교육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문제이다. 종교교육학이 특정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인가? 아니면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인가?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교육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불교적 종교교육이 비록 불교의 입장에서 선 교육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나 포교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패러다임으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학문의 이론이 보편성을 지니면 지닐수록 학문으로서 정체성이 명료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타 문화권에서 개발된 특정 학문의 이론이나 실체가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용되는 데는 적어도 학문의 이론은 시간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 그 사회의 제반 특성과 함께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함으로 특수성을 배제하고 이뤄질 수는 없다¹⁵⁾. 그런 점에서 종교교육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14) 위의 책, 27쪽;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권, 1995, 56쪽에서 경험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지식 외에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직관을 통한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전체적이고 통합적 안목을 형성해갈 것을 제기함.

15) 한국교육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학의 성장

다. 서구에서 연구되고 개발된 이론이나 실체가 과연 한국적 실정에 설명력과 적용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은 일어날 소지가 있다. 특히 서구의 종교교육학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제기된 경향이 지배적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보편화하려고 한다면 적잖은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 적어도 학문의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구에서 개발된 특정 종교교육이 보편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도 설명력을 지닌 경우에 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고 그저 서구의 보편성 잣대로 우리 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물론 특수성은 어디까지나 보편성이란 범주가 있을 때만 성립이 가능한 개념이다. 또한 특수성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특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화권을 넘어선 학문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그러고 보면 보편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 개념의 영역에 따라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종교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지식탐구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속적인 지식추구의 형태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진리(초경험적 진리)를 대상으로 믿음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학교교육에서처럼 지식교육의 대상으로만 국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일 종교교육을 객관적인 탐구대상으로서 지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학교에서 일반적인 지식교육과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종교학이 종교현상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결코 객관적 지식에 한정될 수 없는 것은 그와 무관한 신앙이 중핵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계시적 지식과 귀납적 지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학문적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런 종교의 신앙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종교문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종교의 신앙행위 즉, 체험적인 내용까지 모두 망라하여 볼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교육학이 일반 학문과 같이 보편성을 띠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 한편 결코 보편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문화의 특성상 특수한 성격을 공유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종교교육이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는 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만일 전자에 치중한다면 종교문화교육, 또는 종교지식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후자라면 종교정조교육 또는 종교적 교육학의 성격을 띌 수 있다.

과 과제》, 1983을 비롯하여 정범모, <한국교육학의 자족성 문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5-2, 1-8쪽, 이돈희,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6-3, 1984, 5-10쪽; 이종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문음사, 1992, 등이 있음.

종교교육학적 이론이 시공을 추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의 특성과 더불어 계획되고 실시되는 것이라면 교육이론 자체도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학문은 가능한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적 종교교육학이라는 말이 한국의 독특한 종교교육학의 형성을 목적한다거나 주변학문이나 다른 선진국의 그것과 교류를 단절한 채 독백만을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생산적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론으로서 한국종교교육학은 일반화되면 될 수록 보편타당성을 갖는 것이고 실제로서 한국종교교육학은 철저하게 한국적일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 교육 주체들 간의 관점 차이

현행법상 사학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종교교육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교육 주체들 간에 관점 차이로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 교육기본법(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종교교육은 사실상 사학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학이라 할 지라도 종교교과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자유선택 과목 중에서 다른 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공교육을 사학이 위탁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다, 1967년 이후 중학교무시험제도, 1974년 고교평준화 등은 학생선발이나 학교선택의 자유가 제한받음으로써 종교계 사학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내용만으로 그 특수성을 승인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의 이념에도 배치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교육내용이 교육의 획일성을 조장하고 수월성 추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학고유의 정체성 확립 및 건학이념구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¹⁶⁾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종교교육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종교

16) 김정래,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정책 적합성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RR2003-3, 105쪽.

계 사학의 입장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정체성을 주장한 나머지 종교교육을 정해진 법의 범주를 넘어서 운영하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종교자유권, 내지는 교육권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립학교법(사학의 자주권), 헌법 및 교육법, 등 교육의 주체에 따라 교육권도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¹⁷⁾. 물론 이런 경우 사학에서 종교교육의 사전고지여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학의 허용, 실제적 조화의 이론에 기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은 특정 주체의 전유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공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 현행법의 적절성 여부에 앞서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종교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법적 제도적 변화나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이런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에서 종교교육이 종교의식에 참여여부, 종교교화나 포교로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¹⁸⁾.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둘러싼 구성원들 간에 종교교육에 대해 어떤 합의점을 추구하느냐도 관건이 될 수 있다.

3. 다종교사회와 종교교육의 문제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치, 높은 상징체계 등을 통하여 구축한 인류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런 종교에 대한 앎 및 지식 교육은 개인의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통합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인의 종교문화속에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샤머니즘(巫, Shamanism), 그리고 유교적 가치질서와 한편 불교적 인생관, 기독교적 인생관이 혼재한 복합적인 면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다종교문화 상황에서 특정 종교의 절대 신념체계를 주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는 선교차원의 종교교육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의 재량권이 더욱 확대된 것으

17) 사학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의하면 종교교육의 사전고지여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학의 허용, 실제적 조화의 이론 적용 등을 제기함. 손희권, <사학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2004년도 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11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310쪽.

18) 손희권, 위 논문, 311-312쪽.

로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 경우 학교는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는 종교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종교학적 배경과 개별 종교의 입장을 고려한 배경에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 간에 갈등을 우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런 다종교사회 속에서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자신의 신앙과 사회문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대응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으로서 종교문화교육²⁰⁾을 제안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II.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개념의 딜레마: 학교 내연의 문제

교육과정이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과 연한내에 있어서 학습시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계획을 말한다. 한마디로 학교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교과학습 및 생활학습의 총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을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가?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현행 학교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현행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비춰보면 교과교육, 학교장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밖에 잠재적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과교육으로써 “종교” 외에도 사회과 도덕과 등 인접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을 미시적으로 들여다 볼 때 종교교육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활동, 평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교수-학습 경험과정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분류하면 학생, 교사, 교육내용, 학교(종단) 및 학급의 분위기, 교수조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개념 설정에 모호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로써 “종교”과목 선택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서 편성의 본래 취지인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려가 약하고 학교의 교과목 편제를 보면 획일성은 다소 탈피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 교육신문, 26호 2000. 4월 6일 2면.

20) 윤이흠, <다종교 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집, 1986, 279쪽; 정진홍, 앞의 논문, 2001, 11쪽; 신광철, <한국종교교과서의 현황과 과제>, 한일종교교육심포지움, 2001.2월 26일-27일, 부산동서대학교 발표논문 8쪽.

학교에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대학입시에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이런 상황에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일반선택 교과 총 26개 중 교양군(10과목)의 한 과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계 고교의 선택교과 개설현황에서 2학년 학습수준 생태와 환경, 생활경제에 이어 종교가 선택되었으나 고3에서는 선택학급수가 생태와 환경, 생활경제, 진로와 직업, 철학에 이어 종교가 선택된 것으로 보아 학년에 따라 반감된 것을 알 수 있다²²⁾. 각 시군교육청에서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 선택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교양과목군 자체는 교양함양, 생활경제, 진로탐색 등의 성격을 띤 것으로 매우 의의 있는 과목이나 몇 가지 결함도 있다. 그것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제도가 갖는 결함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종교교과 설치의 합법성이 지니는 모호성,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종교교육 실시현장에서 일어나는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선택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한계²³⁾로 인하여 운영상에 한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모호성 가운데 실시되는 종교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교육 주체들 간에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교육과 경험활동, 잠재적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재량활동 및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성은 희박한 편이다. 물론 일부는 이런 비교과중심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²⁴⁾. 그렇지만 선택의 주체에 따라 갈등의 소

21) 류방관,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4, 124쪽.

22) 위의 책, 173쪽.

23) 홍후조,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선택 교과영역선택>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19-2, 2001, 99-108쪽. 필수나 다름없는 선택, 선택주체가 실제로 선택 대상과 충돌시 난점, 다수결정에 위한 선택의 왜곡, 교육주체가 선택교육과정 실현에 난점 등을 지적함.

24) 불교신문 1977호 2003년 10월 31일 “초등학교 종교교육실시 제안”, '03년 10월 24일 은석초등학교(교장 구연식)에서는 불교교육연합회 지정 제38회 교학연구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한기 교감은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전학이념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며 초등학교 수업에서 교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주당 2시간이상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김교감은 백제문화체험학습을 준비하면서 사찰과 박물관 답사를 통해 사찰예절이나 불교문화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어,

지가 있고,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치,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인접교과에서 종교교육은 적어도 중등학교에서 도덕, 국사, 국어 세계사 등의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종교교과와 유기적인 관련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접교과에서 종교교육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다뤄지기 때문에 올바른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고 통합적인 교재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종교인과의 대화, 영상매체의 활용, 현장견학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²⁵⁾.

넷째, 교사양성 및 재교육 등 교사교육에서 종교교육 개념의 불명료성을 들 수 있다. 한시적으로 실시된 1990년 서울대학교에 종교교사 연구과정을 통한 종교교사 양성을 제외하고 현행 관련 규정 및 제도에 의한 “종교”교사 양성은 사범대학의 종교교육과, 비사범계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에서 종교교육 전공을 통한 경우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교사양성체계는 수요와 공급, 양성과정, 승진 및 재교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종교교사의 경우 수요는 매우 제한된 편인데 공급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임용의 투명성, 교육과정의 문제(종교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교육론, 종교학 및 종교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등), 승진 및 재교육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²⁶⁾. 이런 문제점은 결국 종교교육의 개념의 모호성을 낳게 한 원인이 된다.

다섯째, 교과서 개발에서도 종교교육 개념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위해 교과서는 하나의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종교 교과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종교교과서(인정도서로 약 20여 종에 이름)는 종교교육과정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종교에 대

사회, 미술 등 교과 중 관련내용이 언급될 때 교리에 맞춰 적절히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을 밝히며, 교리교육을 강요하거나 부처님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신교 종립학교인 명지초등학교가 인성교육지도차원에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교리중심 또는 하나님 영웅시하는 수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불교계 종립학교 중 유일한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서도 교사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불교포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 김영태, <도덕과 내용구성에서의 세계윤리와 종교>, 《도덕과교육론》, 한국도덕과교육학회, 교육과학사, 2001, 177-198쪽.

26) 김철주·고병철, 앞의 논문; 김귀성, <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18집, 2004, 12-16쪽.

한 서술에서는 호교론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본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해 관련 학계, 교육계, 종단 등이 충분한 논의와 연구 개발과 함께 교과서 개발을 위한 공동기구가 절실한 편이다²⁷⁾.

여섯째,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한 종교교육의 접근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교육내용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교육과정(교과교육, 재량활동, 특별활동)이 의도된 교육, 주로 교과와 관련된 지적인 교육,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경향, 교사의 지적 영향력에 의해 이뤄지는데 반해 의도되지 않았지만 정의적 측면에서 학교의 문화풍토, 교사의 인격적 감화, 등에 의해 항구성을 지니는 동시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도 주는 교육과정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다²⁸⁾. 따라서 이런 잠재적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의 구조와 특징, 전반적인 문화 풍토와 분위기, 학생들의 하위문화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성교육, 도덕교육, 표면적 종교교육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목 중심의 종교교육에서 벗어나 “성전례적 존재”²⁹⁾를 통한 접근이나, 비정규 종교교육의 프로그램으로써 일종의 인성교육으로 시행되는 “도의실천 인증제” 등은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³⁰⁾

끝으로 미시적으로 종교교육의 목적, 내용, 접근 방법, 평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에 대한 반응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런 반응은 종교 교과교육의 목표, 선택, 프로그램 내용, 접근 방법, 지원체제, 등에서 보완을 요구한다는 반증이다.

1.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교육목표 설정에 모호성이 종교교육 개념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 목표설정

27) 김귀성, 앞의 논문, 2002 가을, 141쪽.

28) 서울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 대사전》 3, 하우, 1998, 2242-2247쪽.

29) 손원영, <제7차교육과정과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135쪽.

30) 김귀성, <佛敎系大學에서 宗教敎育問題>, 제18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 2003, 일본 경도불교대학, 《佛敎と大學》 157頁/.小原國芳, 《宗教敎育論》, 東京:玉川大學出版部, 1972, 177-241頁에서는 인격자에게 접촉을 통한 교육, 견학·수학여행, 노작, 봉사활동, 회개 참회교육, 연중행사 등을 통한 종교도야의 실천활동을 소개하고 있음.

31) 정진홍, 2001, 앞의 논문, 11쪽; 홍후조,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19-2(2001), 99-100쪽;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2001), 90-92쪽; 이종태,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 82쪽, 등에 나타남.

은 제6차 교육과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즉, ①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한다. ②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한다. ③다른 종교를 표용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른다). 이런 목표는 엄격히 말하면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자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이 교과목의 성격이 분명 종교교과는 교양교과목의 일반선택교과로서 고교생들의 일반적인 교양증진을 목적으로 한다³²⁾는 교과목의 성격과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종교교육 목적을 설정한 교과교육이 종단학교, 일반학교 모두에서 종교적, 비종교적, 반종교적 태도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교양교육의 하나로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본격적인 행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교육내용의 중첩 내지는 일관성 문제이다.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는 크게 보면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 부분(1~3장), 공동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물음에 대한 종교적 해답을 모색하는 내용, 각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중첩성('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과 세계종교와 문화'간의 부분적 중첩), 2장과 5장간에 인간관,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간의 중첩, 4장과 6장간의 개별종교에 대한 중복, 타 교과(사회, 역사, 도덕 등)의 내용과 중첩내지는 일관성 부재가 중첩 등의 문제가 있다. 가능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교육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는 교수-학습 계획서 등 관련 문건 등의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선택으로 교과서 내용을 확인은 가능한데 현행 교육과정 취지와 체계에 부합된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면 교육과정 체계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학교 현장 교육에서 다루지는 교육내용간에는 일정 거리가 있음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종교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삶의 과정, 재구성적 활동, 대화적 지식으로 전환, 인성교육 주입으로 전환, 성전례적 존재를 통한 이른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이해 등³³⁾은 교육내용 구성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 본다.

3.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해 "사례중심의 토론식 수업, 대화, 설명형, 시청각 자료 중심 접근, 현장참관학습(교육과정해설서, 147-148쪽)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되는지 모호하다. 물론 종교학적 지식의

3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육부, 1995, 128쪽.

33) 손원영, 앞의 논문, 2001, 132-134쪽.

습득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 범례수업, 종교일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종교에 관한 핵심적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이런 선행학습 결과에 기초해 특정 종교로서 불교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할 것³⁴⁾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른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평가 방법도 논술식,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실제 이런 평가방식이 접근되는지 불확실하다. 평가에서 학습자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수업전반에 관한 학습자의 반응을 토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행에 옮기는지 의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당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이든 도덕교육이든, 종교에 대한 이해에서든 그럴만한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더욱 열성적이고 몰입적인 사람들이 낮은 타종교 관용도를 보이고 있다³⁵⁾ 하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피드백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당위성 못지않게 그럴만한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는 거시적으로는 제도, 한국사회의 다종교상황, 미시적으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문제, 교사, 교과서 개발, 학습자의 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등이 총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III. 종교교육의 개념 모형 탐색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결정하는 변수는 교사, 학생, 학교(종단), 국가 사회, 등 실로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이 교호작용하는 교육과정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모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34) 고진호, <제7차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76쪽.

35) 한내창, <동서양 문명에서 종교성>,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36집(2004가을), 198쪽.

육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둘째, 현행 우리 교육체계에서 교과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종교문화교육은 적절한 개념모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종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는 이른바 종교학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의 종교 신앙적 접근은 교과교육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선택적 활동에서 수용한다면 국공립사학을 막론하고 보편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종교성의 함양이라는 목적에 비취볼 때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종교적 정조, 종교성의 실천적인 면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말하자면 종교성의 한 부분에 국한될 소지가 크다. 구지 브룸(Bloom)의 분류방식을 빌지 않아도 종교성의 함양에 종교의 이해는 필요조건은 될지 모르나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종교문화교육모형이 수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체계, 교과서 개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지원체제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당위성 못지않게 인성교육에서든, 타종교이해의 측면에서든, 도덕교육의 측면에서든, 종교교육이 분명 필요하고도 충분한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가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목적이나, 내용선정, 교수-학습활동-교육평가의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교수 방법론의 개발, 교사양성 및 재교육의 재편,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과정의 모형 정립,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내외의 모형의 평가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모형이 종교교육을 건전한 종교성의 함양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지식, 정서, 실천적 성향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 종교교육은 실천적 종교성이나 종교적 정서의 일부분으로 수용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교과교육에 이런 종교적 정조나 실천을 위주로 하는 모형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교과교육이라 할지라도 지식 외에 정서, 행위 등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교과교육에서는 종교 신앙적 내용이나 정서 등 보다는 지식과 관련된 종교성에 비중을 둘 뿐이다. 그러므로 종교문화나 지식 이외의 다른 분야의 종교성 함양은 활동중심 교육과정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극대화하면 얼마든지 수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접근은 오히려 사학의 종교교육이 그 나름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모형은 종교문화교육과 충돌보다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교적 교육을 주장하는 면에서 보면 통합은 일종의 만남으로 지성과 감성의 만남, 지식과 체험의 만남, 자신과 세계의 만남⁴²⁾이라면 이

는 종교문화 교육의 교과중심교육과 종교적 정조 및 실천 중심의 잠재적 교육과정 및 체험중심 교육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공교육 체제 하에서 종교교육의 발전적 지향점을 찾는다면 통합적 종교교육모형이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모종의 발전적인 변화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비단 어떤 한 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공교육에 이르기 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현재의 종교교육 개념모형은 적어도 교육의 이름으로라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한에서 그것은 “교육적”이라는 전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특정 종교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동의하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 밖에서 종교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적절하고도 타당한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발전적 지향점을 찾는다면 학교의 공식적인 교과교육활동에서는 적어도 종교교육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교육이 종교성의 함양이라면 종교교육으로부터 해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설사 교과교육에서 종교학적 내지는 종교문화교육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종교 지식교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타종교를 신앙하는 학생에게도 종교성이 자연스럽게 종교적 신앙의 부분으로 소개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 문제가 해결을 기다린다. 이 문제는 비형식적 교육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정규교육과정일지라 할지라도 활동중심적, 학교장 재량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적절히 수용될 여지를 남긴다. 그렇게 된다면 사학의 자율성도 존중되고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종교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이 이렇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역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당위성 못지않게 종교교육의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IV. 맺는 말

이 논문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42) 박범석, 2004, 앞의 논문, 181쪽; 加藤西郷, 《宗教と教育》, 東京:法藏館, 2000, 95頁/杉原誠四郎・大崎素史・貝塚茂樹, 앞의 책, 文化書房博文社, 2005, 131頁; Clive Erricker and Jane Erricker, *op.cit.*, 2000, pp.18~21에서 종교교육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접근을 제시함.

출발하여 현재 학교에서 우리의 종교교육은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과업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의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영향을 주는 외연적인 변수로는 제도(국가, 사회), 교사, 학생, 학교(종단) 등이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접근방법, 평가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동안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과 함께 향후 적절한 개념모형을 위한 조건을 제시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개념설정에 난점은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과도 관련이 있다. 어떻게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모호성과 혼란을 극복하는데 종교교육학이 이제 어떤 형태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각 종단에서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가 선교나 포교적 차원을 넘어 학문공동체에 보편적 담론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학문의 접근 결과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한 학문인지 모호하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교육학의 대상과 연구방법이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한 학교 내 종교교육, 종교교단 내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임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성을 전제로 한 종교교육을 보편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종교적 배경을 떠나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의 형태로써 종교교육학이 추구해야 할 보편 타당성성을 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둘째, 종교교육의 개념적 혼란은 교육주체들간의 관점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채 다종교사회임에 불구하고 종교계 사학은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학습자는 교육권을 각기 주장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교육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과로써 종교교육은 교양 선택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복수교과 설정, 입시부담 등으로 인하여 학습자 중심의 선택에 모호성 있고, 재량활동 및 특기 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며, 인접교과와 관련된 종교교육은 유기적 관련 아래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사양성, 재교육(승진)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한 적어도 종교교사 양성체제도 그에 걸맞게 재편되어야 하며, 교과서 개발 역시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비록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면서 학습자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교과교육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는 교육목표설정의 모호성, 교육내용의 중첩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모호성 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으로 종교문화교육모형과 통합모형을 들 수 있는데 적어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종교성의 함양이라는 목적에서 양자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양자의 구분이 엄밀하게 구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교육에서는 종파교육을 지향한 종교문화교육으로,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비교과교육 활동 영역에서 종교정서 교육이 수용되는 통합화의 방향으로(종교성 함양을 위한 교육)그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이 당위적 성격을 띠려면 향후 이제 종교교육이 공교육에서 존재해야 하는 타당하고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돈구·박진원 역(J.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종교교육이론》, 서광사, 1992.
- 강영희, 《종교계 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실태조사》, 세종대 교육학과 《군자교육》 Vol.8, 1977.
- 강희천, 〈한국기독교 학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일종교교육심포지움발표문(부산), 2001.
- , 《기독교교육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대한 기독교서회, 1999.
- 공윤배,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2002.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교육부, 1998.
-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④ 사회, 교육부.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1998.
- , 《고등학교교육과정(I)》, 교육부.1998..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 김귀성,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3, 1997.
- ,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8집, 202년 가을.
- , 〈학교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18집, 2004.
-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 주는 종교적 변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4-6,

1990.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14-6, 한국교육개발원, 1990.
- _____, 〈한국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20권, 2001.
-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3권, 1997.
-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2004.
- 박범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 _____,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본 종교적 경험의 통합적 성격〉,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37 (2004 가을호)
- _____, 〈종교성 함양의 교육적 의미〉, 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4(2002.06)
- _____, 〈교육종교학 성립의 필요성과 전망〉, 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5('02.10)
- 서희정, 〈종교교육의 의의와 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 (II), 1998.
- 손희권, 〈국가의 종교학교 지원에 관한 미대법원 판례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무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13집, 2000.
- _____,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2004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04.10.30), 교육행정연구회 발표논문.
- _____,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한국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10, 1998.
- 신광철,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종교과목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한일종교교육심포지움 발표문 (부산), 2001.
- 신상명,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집, 2002.
- 안병초,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서울: 가톨릭문화원, 1999.
- 엄현철, 〈미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교육법적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2, 2002.
- 오승현, 〈대한민국의 교원양성체제 현황과 과제〉,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acher Training and Appointment System 2004.
- 오인택, 〈독일의 종교교육과정이론의 최근 동향〉,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8권, 1990.
- _____, 편, 《한국 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 1945-1980,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 오태순, 〈종교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신심변화〉, 한국가톨릭 사회과학연구회, 《가톨릭 사회과학연구》 2권, 1983.
- 유방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4.
- 윤이흠, 〈종교다문화속에서 종교교육〉,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 1986.
- 이경숙,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 이은봉,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 《학문과 종교》, 서울: 도서출판 주류, 1987.
- 이일주, 〈한국의 교사양성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acher Training and Appointment System 2004.
- 이중석·백종익, 《국내교과교육연구실태조사연구》 RR93-III-7,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1994.
- 이진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96.
- 이태욱, 《교과교육 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RR2000-V,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0.
- 장종철, 〈종교다원주의 상황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목적 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29권, 1994.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집, 1986.
- _____, 〈종교교육의 실태〉,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_____,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집, 2001.
- 정현숙, 〈종교교육의 연구영역〉,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8권, 1992.
- Alan Harris,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집문당, 1993.
- 조영관,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경향잡지》, 3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 《한국신학관계식·박사학위논문목록집(1945-1988)》, 나눔, 1988.
- 한순자,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홍후조,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선택 교과영역선택〉,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19-2호, 2001.
- _____, 〈제7차교육과정과 고교철학교육〉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철학교육》 17권30호, 2001.06.
-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
-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공1989.1609)
- 대법원 1992.12.22 선고92도1742 판결(공1993상,650)
- 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1123 판결(공 1989,1243)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4737 판결(공 1992, 2420)
- (원심판결일자)960724 (원심법원)서울고법 (원심사건번호)95나29385
- (위 자료 근거) <http://law.daum.net/precedent/precedent-list>
- 井上順孝, 《宗教教育資料集》, 東京: すずき出版.1993.
- _____, 《宗教と教育》 東京: 弘文堂.1997.
- _____, 《教育のなかの宗教》, 東京: 新書館. 1998.
- 加藤西郷, 《宗教と教育》, 東京: 法藏館, 2000.
- 加藤西郷(2000), 《宗教と教育》, 東京: 法藏館
- 廣瀬卓爾, 〈高等教育大衆化時代における佛教系大學の課題〉 第18回國際佛教文化學術會

- 議。(日本京都, 2003.10.28) 發表論文
- 安達俊英, 〈佛教系大學における教育-宗門子弟/一般學生〉, 第18回國際佛教文化學術會議。
(日本京都, 2003.10.28) 發表論文
- 齋藤昭俊, 〈佛教教育の目的〉, 大正大學出版部, 《大正大學研究紀要》, 57. 1972.
- , 〈宗教と教育理念と現實の乖離のはざままで教育が負うべき課題〉, 《龍谷大論文集》, 445. 1995.
- , 〈佛教教育における戦前と戦後〉, 日本印度學佛教學會, 《印度學佛教學研究》, 40 卷1號,(通卷79 號),1991.
- , 〈近代における眞言宗の教育〉, 智山勸學會, 《智山學報》, 21.1973.
- 寺川幽芳, 〈私立大學における宗教教育の現状をめぐて〉, 《佛教文化研究所紀要》13.1983.
- 加藤西郷, 〈現代における宗教と教育の問題〉, 《龍谷大學論文集》 427號. 1985.
- , 《宗教と教育》, 東京: 法藏館. 2000.
- 小山一乗, 〈教育課程における「宗教教育論」と「教育宗教論」の對比的措定の覺え書き〉, 駒澤大學 《佛教經濟研究》20. 1991.
- , 〈宗教教育・宗教科教育〉における宗教の教育考〉, 《佛教經濟研究》21.1992.
- 林 淳, 〈近代日本における佛教學と宗教學〉, 日本宗教學會, 《宗教研究》76-2(通卷 333), 2002
- 柴沼晶子・新井淺浩 編, 《現代英國の宗教教育と人格教育》(PSE), 東京: 東信堂, 2001.
- 江原武一 編,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 杉原誠四郎, 大崎索史, 具塚茂樹,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文化書房博文社, 2004.
- 小原國芳, 《宗教教育論》,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1972.
- Yoshimaro Mashiro, 《宗教教育の本質を問う-危機にある子どもたち》, 京都: 法藏館, 2005.
- Archibald, H.A. George Albert Coe: Theorist for Religious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5.
- Cristopher Winch and Hohn Gingell, *Key concep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9.
- Clive Erricker and Jane Erricker, *Reconstructing Religious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Falmer, 2000.
- Christoper Winch, "Learning about religion", *The philosophy of human learning*, R.KP, 1998.
- Edwin Cox and Josephine M.Cairns, *Reforming Religious Education*, London: Kogan Page, 1989.
- Erricker. C and Erricker. J, *Reconstructing Religious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Falmer, 2000.
- Erricker. Jane, "A critical review of religious education", *Reconstructing religious,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NY: Routledge Falmer. 2000.
- Gardener. Peter, "Religious upbringing, and Liberal ideal of religious autonomy",

-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22, No. 1, 1988,
- Hann Alexander and Terence H. Mclaughlin, "Education i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Nigel Blake, Paul Smeyers, Richard Smith and Paul Standish, *Philosophy of Education*, Blackwell Publishing, 2003.
- Harold E.Mitzel(edt),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5th edit, NY: The Free Press, 1982.
- Ian MacMullen, Education for Autonomy: the Role of Religious Elimentary Schools, i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38, Issue 4, 2004.
- Kim, Chong-Suh, "Inter-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Education in Contemporary Korea",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 문화》 11(2005).
- Laura Roanld S."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28-4. 1978.
- Lawler,M.G, Long live paradigms: Models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1974, 69(2).
- Losoto, William F, "Response to Laura: patching up his shaky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Fall, Vol 29. No. 4.,1979.
- Langford. G and O'Connor, "Is religious education possible?, *New essay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 McLaughlin.T.H, "Parental right and religious upbringing of childre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18, No.1, 1984.
- _____, "Peter Gardner on religious upbringing and the liberal ideal of Religious Autonom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24, No.1, 1990.
- Snook. I. A, "Indoctrination and religion" *Concept of Indoctrination: Philosophical essays*, R.K.P,1972.

원고접수: 2005년 11월 8일 1차심사: 12월 10일 게재승인일: 12월 14일

연구자 소개 : 김귀성

① 전공: 교육철학·교육사 / 소속: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한국교육의 문화교류사, 동양교육철학

③ 주요논저: <원불교의 인격교육론>, <J Aleni저 한역서구교육자료가 아시아 교육에 미친 영향> 외

④ E-mail: gskim@wonkwang.ac.kr

Conceptual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Korean School education

Kim, Gui Su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blem of religious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 in Korea and want to establish an adequate conceptual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Result of this paper will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can be pointed out the ambiguous of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related to dilemma of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Second, Though multi-religious society, without consensus of related member of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could be operated irregularly. Third, thought religious education as optional subject of liberal arts served in school, it is hard to select that subject because of burden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nd theoretically as possible but lack of actuality related with discretion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religious education with neighbor subject have no organical relation. Fourth, teacher education(promotion) and textbook should be reorganized as its object of religious education. Hidden curriculum will be supplement the regular curriculum also enhanc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if it developed as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student and school, maximize the effect of education.

Fifth, there are lots of task overcomed ambiguous of object, overlap of content , teaching-learning and evaluation system etc. Sixth, among religious culture model and integrated model, at least on the stance of purpose of religious education, it should be make an effort to accept a merit and supplement a defect.

Key word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subject, Religious teacher, Curriculum of religious education.